



왼쪽부터 · 구성연 <팝콘> 2007
<유클리드의 산책전>에 출품한
이중근의 작품
황혜선 <홀리지 못한 눈물>
2007
성낙희 <클린치> 2007

과 개인의 신화('Culture+Culture', 'Digital+Analogue', '관찰자+타자')를 담아내는 자로서의 주체적인 자아, 담고 있는 자로서의 주체적인 화자인 것이다. 근대가 종말을 고한 이후 여전히 세계를 둘러치고 있는 근대적 매트릭스의 문화를 화가 마그리트와 걸으며 그 매트릭스를 간섭하고 욕망하며 기록하는 실험적인 디큐멘터리.

그렇다면 이 전시의 미덕은 진정 무엇일까. 그것은 동시대예술, 예술작품을 분명하게 정리한 큐레이터의 성격을 짚어 던지고 있다는 점이며, 다루는 수많은 장르 사이의 접점으로서 예술가에게 새로운 태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 예술가들은 잃어버린 내적 대상에 대한 슬픔(표상(멜랑콜리아)인 르네상스 거장 뒤러 식의 슬픔)을 넘어서는, 멜랑콜리한 증후를 떨치고 예술 바깥과의 치열한 관계들의 집합 속에서 잃어버린 내적 대상의 사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전시의 출발, 원본이 생산되는 힘을 제시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로서의 예술가가 아닐까.

김주원 · 유영국미술문화재단 학예실장

황혜선

12~10.2 이화익갤러리

황혜선의 이번 개인전은 의외가 아니다. 황혜선표의 언어인 유리, 보석은 독특할 게 없다. 또한 1인 전시장을 주도하는 영상작품은 작가의 개인적 이야기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난해 발표된 영상작품을 견주어 새로운 건 아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 그의 작품에서 늘 의외를 바라는 건 필연적이고 정면 심사였음을 고백해야겠다. 찬찬히 훑어보면 그의 작품이 의외의 것을 보여준 적은 없

었고 지금도 버젓하다.

그의 작품은 늘 삶의 가장 안에 있었고 이번 전시도 그러하다. 그 삶은 황혜선의 개인적 삶이다. 그 언어는 공적 공간을 파고들지 않는다. 너무나 개인적이다. 그러나 그 개인적 언어가 발휘하는 힘은 결코 사사롭지 않다. 파롤이 랑그가 되는, 개인적 서사가 사회적 담론이 되는, 아니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언어를 이토록 섬세하게 구사하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작가는 필자의 정보에 기대면 몇 안 된다. 짧은 지면에 이를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 터. 이번 전시에서 황혜선은 여태 해온 유리 작업을 변용한다. 이전 작품들이 유리 판을 여러 겹 덧대 그린 것이지만 이번 개인전은 한 장의 유리다. 흰색 종이를 유리 뒷면에 붙여 깊이 만들 만든 후에 실크스크린으로 풍경을 그려넣었다. 언뜻보면 사물의 나열, 의식의 나열로 해석될 수 있지만 풍경이 동떨어져 있진 않다. 풍경이 서로 열게 겹치거나 흐릿하게 채색된 정물은 나열이라는 말보다 겹침이라고 해야 옳다. 의식이나 의미의 겹을 얘기하듯 도드라지는 것이 전보다는 다가도 색이 칠해진 화면 전경이나 중경의 초콜릿이나 나무가 되기도 한다. 경계가 터진 풍경들, 무채색의 유리면, 등성등성한 오브제와 칠해진 듯 채색이 열린 색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의식 밖의 풍경과 사물의 본질, 즉 흐물흐물한 의식의 모호성을 돋우는 형식적 측면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영상작품 역시 의식의 중층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평면작품과 같은 맥락에 위치한다. 찻잔에 가득 차를 따르지만 이미 가득한 상태로만 보여지는 <Being there>는 소통의 극락, 존재의 최대치를 상징하고, 뽀족 구두 한 짝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억의 그것처럼>도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 언어로 드러내는 작

품이다. 기억은 구두처럼 불규칙하게 드러나지만 기억을 할 때 움직이는 우리 몸의 무의식적 행태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의 시각 언어는 의식과 무의식의 어정쩡한 형태, 의식의 언저리를 다룬다. 그것은 의식 밖에 잠시 머문다는 점에서 의외이긴 하다.

정형탁 · 갤러리벨벳 디렉터

성낙희

9.6~10.6 원앤제이갤러리

캔버스에 플래시 페인트로 그려진 이 그림은 너무나 회화적이다. 그 무엇으로 환원되거나 특정 형태에 안주하지 않고 그저 그림을 그림으로 밀고 나갈 뿐이다. 오로지 붓질과 물감, 색이 윤곽을 짓고 채우고 영역을 만들면서 증식되다가 홀연 멈춰있다. 물감들은 곱게 발려지다가 순간 흐르고 튀기고 그러다가 다시 죽죽 지나간다. 직선이 아닌 곡선들, 유기적인 선이 겹겹이 모여있는 이 춤추는 조화나 관계는 여러 층위에서 조우한다. 보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캔버스 안으로 흡입하는 장치다.

이 시각형은 외부로 지시하거나 존재론적 조건을 명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저 홀연히 화면/평면 여기저기, 내부와 외부로 마냥 유량한다. 일정한 면적을 지닌 붓질과 붓이 지나간 선들이 서로에게 끌리고 이어지고 만나서 우연히, 혹은 불가피하게 생겨난 영역, 자취를 보여줄 뿐이다. 무수한 관계의 망이 직조되어 이룬 독특한 이미지들이다. 그것은 서사나 형상, 즉물적인 증거가 아닌 자리에서 서식하는 식물같이 자라나는 회화들이다. 다시 회화가 흘러넘쳐도 회화적인 그림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이 그림은 회화가 무엇인지를 새삼 보여준다.

